

#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

(강력하고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 확립과 119서비스 고도화 방안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

(강력하고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 확립과 119서비스 고도화 방안 마련)

의안 번호	37
----------	----

발 의 년 월 일: 2014. 7. 23.

발 의 자: 유일용 의원  
(찬성자 6 인)

## 1. 주 문

-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과 검단 신도시 개발에 따라 초고층건축물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공항·항만·화력발전소·LNG 기지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 남북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서해도서 등 접경지역에 대한 도발 위협 상존과 9월로 다가온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 등으로 인천광역시의 소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평상시에는 효율적인 업무분담체계를 구현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소방현장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으로 시민에게 고도화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 소방안전본부에 지방소방준감으로 보하는 1·2부분부장직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는 송도, 청라, 영종, 검단 신도시 개발 등 고도 성장의 일로에 있고, 인천 거주민의 300만명 달성 및 2014 아시아경기대회 개최가 임박함

- 이러한 급속한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세월호 침몰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고, 천암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국가적·지역적 대형 사고의 그늘이 있어 왔음
- 특히, 인천광역시는 도시개발에 따른 재난관리 공간의 확산, 초고층 건축물 건설, 공항·항만 시설의 확대, 서해 접경지역에 대한 도발 위협 상존 등 소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완전통합형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방, 인적·물적·자연적 재난 및 비상사태 대응 기능을 소방안전본부로 일원화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효율성을 발휘, 우수사례로서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그 역할과 위상이 높아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본부장(소방감)과 소방담당과장·소방서장(지방소방정)의 가교 역할을 할 차상위 직급(지방소방준감)의 간부가 없어서 평상시 효율적인 업무분담체계 구현 및 재난발생시 책임 있는 차상급자에 의한 강력한 현장지휘권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시민에게 119서비스의 질 저하 및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소방담당과장·소방서장 진급후 11년이 경과하면 자동 퇴직해야 하는 실정으로 사기 저하는 물론, 선의의 경쟁시스템 정착에도 장애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적 특수성, 선진형 관리체계 정착, 2014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일원화된 강력한 현장지휘체계 확립이라는 당위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소방안전본부에 지방소방준감으로 보하는 1·2부분부장직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임.

3. 이 송 처 : 청와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인천광역시

4. 첨 부 :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 1부.

#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

## (강력하고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 확립과 119서비스 고도화 방안)

인천광역시시는 현재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동북아의 세계적 중심도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도, 청라, 영종, 검단 등 이름만 거명해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굵직한 신도시들의 힘찬 융틀임에 힘입어 삶의 공간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인천에서 살고 싶어 하는 시민이 어느덧 3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그동안 축적되었던 인천의 잠재력은 급기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로 집약되어 분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랄만한 속도로 성장하는 이면에는 경계하며 조심해야 할 부분 또한 존재합니다. 온 국민이 충격과 아픔속에 휩싸였던 국가적 사건으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등이 있었고 지역적으로는 1999년에 가까운 이웃들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고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의 안타까움과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여건을 살펴보면 재난환경이 순탄치 만은 않습니다. 신도시 내에 초고층 건축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신축되고 있고, 한류·교역량 증가로 공항·항만 시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북한과 인접하여 서해 도서 등 접경지역에 대한 도발위협이 상존하는 등 소방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복잡·다양한 각종 재난양상에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서는 일찍이 타 시·도와는 차별되게 소방, 인적·물

적·자연적 재난 및 비상사태 대응 기능을 소방안전본부로 일원화한 완전통합형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안전본부장(소방감)과 소방담당과장·소방서장(지방소방정)의 가교역할을 담당해야 할 차상위 직급이 없으므로 평상시 효율적인 업무분담체계를 구현하고 재난발생 시 책임 있는 차상급자에 의한 강력한 현장지휘권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서울·경기·부산에서는 지방소방준감을 5명 내외로 운영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더하고 있으며 현장지휘권을 확립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소방담당과장·소방서장 진급후 11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퇴직해야 하는 실정으로 사기 저하는 물론, 선의의 경쟁시스템 정착에도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현장지휘권 확립의 곤란 및 조직 구성원의 사기 저하 등은 119서비스 질(Quality) 저하로 이어져 시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바,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 타 시·도 보다 앞선 선진형 관리체계 정착,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고려한 강력한 현장지휘체계 확립이라는 당위성을 감안하여 인천소방안전본부에 지방소방준감으로 보하는 1·2부본부장직을 신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4. 7.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